

# ‘설 성수기’ 온라인도매 농산물 6000톤 할인 지원

농식품부, 출하 운송비 50% 지원  
실속형 과일세트 3만 상자 유통  
사과·무 등 특화 상품 10% 할인  
“명절 기간 유통비용 부담 절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과일선물세트 3만 상자 등 농산물 6000톤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운송비 지원 50%,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3만 상자 유통, 성수품 특화상품 구성 및 10%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집중

되는 농산물 유통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행사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총 지원 예산은 2억원 수준으로, 약 6000톤 수준의 물량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물동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판매자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지난 9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에 포함

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 중 3만 개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또 사과, 무, 배추 등 설 성수품 품목을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가락도매시장의 서울청과는 사과 5kg 선물세트를 이번 설 특화상품으로 별도 구성해 시중 도매가보다 약 10% 수준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물동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수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인 16만8000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투입해 총 28개 품목에 대한 할인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와 겨울철 배추·무 공급 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1000톤을 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4월 말까지 배추 할당관세(27→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30→0%)도 4월 말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식품업계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할인행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김치, 나물, 장류, 음료, 라면 등 주요 가공식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외식비는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배달료 부담 등으로 산발적으로 가격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는 2.9%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원재료 할당관세 운영,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 완화 등 식재료·인건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 광주점, ‘뱀 골드바’ 출시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아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골드바 매장에서 ‘뱀 골드바’를 출시했다. 희망과 지혜를 상징하는 해인 을사년을 기념해 제작된 뱀 골드바는 24K 순금이며 100g/37.5g 두 가지 중량으로 만나볼 수 있다. 뱀 골드바와 일반 골드바 100g 이상 구매 시 추가 롯데 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 행사도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아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골드바 매장에서 ‘뱀 골드바’를 출시했다. 희망과 지혜를 상징하는 해인 을사년을 기념해 제작된 뱀 골드바는 24K 순금이며 100g/37.5g 두 가지 중량으로 만나볼 수 있다. 뱀 골드바와 일반 골드바 100g 이상 구매 시 추가 롯데 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 행사도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전남산림연구원, 황칠나무 칙액 활용 향수 개발

신경안정·진정효과 등 확인  
특허·기술이전 제품화 추진

전남도산림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역 비교우위 난대수종인 황칠나무의 칙액을 활용, 신경안정과 진정효과가 있는 편안한 느낌의 향수를 개발했다.

13일 연구원에 따르면 황칠나무는 완도, 해남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 자라는 난대수종으로, 높이 15m까지 자라는 늘푸른큰키나무다. 황칠나무는 어린잎이 3~5갈래로 갈라지고, 성목은 7~8월 수피에 상처가 나면 황칠액이라는 노란색 수액이 나온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수액은 과거 왕관 등의 황금색 칠을 하는 전통공예용으로 사용됐으며 조선시대에는 조공 품목에 해당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그동안 다양한 황칠나무 연구를 진행, 뇌파 실험을 통해 황칠 향기가 알파(α)파를 증가하는 등의 생리적 진정효과가 있음을 검증했다. 이와 더불어 기분



황칠액을 활용한 향수. 전남도 제공

상태설문(POMS)을 통한 우울, 분노, 적대감, 피로 감소 등 심리적 안정효과 등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2010년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에 발표된 바 있다.

이에 연구원은 지난해 황칠나무의 향기 성분을 분석, 진정 작용과 중추신경계 안정에 효과적이고 천연향우울제로서 신경안정과 숙면을 유도하는 성분인 캐리오피렌(Caryophyllene)과, 두통·신경장애·

불안·히스테리 등 치료에 사용되는 감마-뮤롤린(γ-Murolone)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대표적 진정성분으로 알려진 알파-핀넨(α-pinene) 등 다양한 성분을 분석, 황칠액이 안정·진정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황칠액을 통한 향수를 개발한 연구원은 제품명을 ‘황금색 칠이 나오는 나무’라는 뜻의 ‘골드트리(Golden Tree)’로 지었다.

앞으로 황칠액을 포함한 황칠 향수 개발 기술 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 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제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산림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생달 나무 정유를 포함하는 향료조성물 개발 기술’ 연구 결과를 지역 향장업체에 기술이전해 디퓨저 제품을 출시했다. 올해는 지역 향장업체와 함께 ‘세럼’ 등 화장품 개발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 중진공,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3일부터 ‘2025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조혁신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와 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신사업 분야 전환을 위한 사업전환 컨설팅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전환 컨설팅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을 위한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후속 연계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올해 진단 1000개사, 컨설팅 1040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참여기업은 구조혁신 대응 수준과 사업전환 타당성을 진단받고, 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구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 또 중진공을 통한 사업전환계획 승인 시 사업전환자

금, 연구개발(R&D),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등의 후속 연계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중진공은 지난해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구조혁신지원센터를 경기 안산, 강원 춘천, 충남 천안 등 3개 지역에 추가 개소했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플랫폼 서비스 융합 등 신사업 분야 및 HR 분야 컨설팅을 추가 모집하고, 성과 중심 관리를 통한 구조혁신컨설팅 품질을 강화하는 등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3t)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우주 광주지역본부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 중진공이 구조혁신이 필요한 기업을 먼저 찾아가, 기업에게 새로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 현대차·기아, 설 연휴 특별 무상점검 실시

22일부터 24일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설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 특별 점검은 △기본항목(브레이크패드·공조장치·타이어·동화장치) △엔진룸(오일류·냉각수·워셔액·배터리)

△전기차(냉각수 및 고전압 배터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점검을 마친 고객에게는 부가 서비스로 워셔액을 무상 지급한다.

무상점검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15일부터 17일까지 마이현대·마이기아·마이제네시스 등 차량 점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쿠폰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차주는 전국 블루핸즈 1223곳, 기아 고객은 오토큐 750곳을 방

문해 점검을 받으면 된다.

현대차·기아는 “설 귀향길 장거리 운행에 나서는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자 무상점검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설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현대차 080-600-6000/기아 080-200-2000/제네시스 080-700-60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영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간편보상 프로그램’ 운영

삼성전자가 새로운 중고 스마트폰 보상 프로그램인 ‘갤럭시 간편보상’을 14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갤럭시 간편보상’은 고객이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연중 언제든지 갤럭시 스마트폰을 삼성닷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모델은 갤럭시 S23·S22·S21·S20 시리즈, 갤럭시 Z 폴드5·폴드4·폴드3, 갤럭시 Z 플립5·플립4·플립3 등으로 국가에 따라 대상 모델은 상이할 수 있다.

중고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삼성닷컴의 ‘갤럭시 간편보상’ 페이지에서 예상 견적을 확인 후, 간편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회수 가이드에 따라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면 된다.

회수된 제품은 상태에 따라 △엑셀런트 △굿 △리사이클 등 3개 등급으로 판정된다. 이후 등급에 맞는 보상금액이 고객에게 지급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간편보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 스마트폰 보상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갤럭시 스마트폰

의 시장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갤럭시 간편보상’을 통해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향후 재판매 등에 활용해 순환 경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갤럭시 간편보상’은 국내를 시작으로 해외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고폰 수거, 보상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삼성전자의 파트너사 ‘라이크와이즈’가 담당한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14일부터 삼성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정호진 부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갤럭시 제품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고 순환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